

연구 자료

일본의 농촌지역활성화 사업

윤 석 원*

- I. 머리말
- II.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책방향
- III.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사례
- IV. 맺는말

I. 머리말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일본도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인 1961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개방에 대비하여 왔고 최근 ‘高附加價値 農産物開發’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촌일품운동’과 ‘도시와 농촌교류산업’, ‘고향창생운동’,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운동’등 농촌지역 활성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농촌 활성화 사업 또는 운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지원하에 철저하게 농민이

나 농민단체들의 자발적·자생적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환언하면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활성화 사업의 주체는 농민 또는 주민이며 농민 스스로의 개발의지가 정책지원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대 농민·농촌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과거의 관주도적인 下向式 지원 방법에서 탈피하여 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농민 또는 농민 단체로 하여금 자생적 노력을 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농촌활성화의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농업 및 농촌개발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료로써 일본의 농촌활성화 사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농촌활성화 사업에 참고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부교수.

II.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책방향

1.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방향

현재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는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1) 고부가가치 농업의 추진 등 다양한 농업의 전개, (2) 생활환경의 정비, (3) 농지 이용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가공특산품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도시와의 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산간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중·산간지역 활성화 기금'을 1990년 4월에 창설하여 중산간지역내에서 농림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시설, 농지, 임야, 어장 등 농림어업자원을 활용한 보건기능 증진시설,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定住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농촌 광장, 간이배수시설 등 환경정비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長期(15~25년), 低利(年利 5.0~7.8%), 그리고 사업비의 80%(금액한도 없음)를 융자하여 주고 있다.

둘째, 농·산촌진흥기금(500억엔)을 1990

년 3월에 설치하여 1997년 까지 중·산간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며 금리는 年利 3.5%(下限)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종합적인 중·산간지역 활성화 대책으로서 道路 및 農路 등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 농림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 도시(町)와의 교류확대, 개성있는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 추진, 그리고 개성이 풍부한 농산물, 특용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대책 등이다.

2.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농촌지역 활성화 시책 추진방향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시책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방향 내지는 종합적인 시책요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都道府縣)는 광역적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市町村 단위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추진된다. 市町村이 주도하는 농촌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의 종합적 발전과 기본계획의 일환으로서 농민단체(청년회, 부녀회, 지역번영회 등), 공공단체(농협, 수협, 山組 등), 그리고 행정기관(市町村과 會議)이 서로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업의 발상과 주도적 역할은 대부분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하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어 官·民이 일체가 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Ⅲ. 日本의 農村地域 活性化 事業 事例

1. 一村一品運動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일촌일품운동은 1979년 오오이타현(大分縣)의 坪松知事が 空洞化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성격의 농촌지역 개발운동으로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본의 약 70%의 지역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 일촌일품운동의 정의

일촌일품운동은 한 마을에 한 가지 품목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一品’은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품’ 또는 ‘품격’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촌일품은 ‘일촌에 한 가지 특산품’이라는 의미 이외에 농촌 활성화에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촌일품운동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의 발굴·보전이라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어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정신개혁운동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 ‘物’과 ‘人’이 풍부한 농촌지역을 건설하려는 운동이다.

나. 일촌일품운동의 원칙

大分縣의 平松지사는 일촌일품운동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地域的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신념이다. 즉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로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자주·자립·창조적 연구’이다. 즉 일촌일품의 개발은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발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발상이 아니다. 一村三品이든지 二品이든지 전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다만 행정부는 지원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셋째, ‘인재 양성’이다. 즉, 일촌일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농촌에 인재(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적극 육성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촌일품운동은 철저하게 각 지역 중심의 운동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인재육성이 성공의 관건임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大分縣 일촌일품운동의 성공 요인

大分縣의 일촌일품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촌일품운동은 처음부터 특산품의 생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특히 지도자의 육성을 통한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처음에는 縣정부가 12개 지역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강습소(塾)를 설치하여 2년 과정으로 지도자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에 200명을 배출하였다. 그 후 자생적으로 현재 縣내에는 23개의 강습소가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설치되어 그동안 900여명의 지도자를 배출

하고 있다. 이 강습소의 2년간의 교과과정은 물론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며 縣 정부는 다만 강사초청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강습소의 강의 및 토론은 주 3회 정도 약간을 이용하여 열리며 견학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재 즉 지도자의 육성이 특산품의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촌일품운동이 일회적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10여년 이상 지속되면서 성공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둘째, 관의 농촌·농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애정에 찬 지원 의지와 대외홍보를 들 수 있다. 大分縣의 경우 平松지사가 1979년에 일촌일품운동을 제창하였으나 이 운동을 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民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유도하는 한편,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공무원과 농협 간부들이 총동원되어 지역 특산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예컨대, 平松지사가 경매시장에서 직접 연설하기도 하고, 동경의 최고급 호텔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大分特産品에 대한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관이 앞장서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셋째, 大分縣의 경우 철저하게 지역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마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주고, 지역 주민이 개발의사가 없는 마을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사업이었다.

이와 같이 大分縣의 일촌일품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官과 民의 조화와 신뢰가 깔려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 大分縣 大山町 농협의 NPC 운동

平松지사의 일촌일품운동은 大山町 농협의 失幡治美 전 농협장이 1961년에 제창했던 NPC 운동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山町농협은 1961년에 제1차 NPC(New Plum and Chestnuts)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이는 매실과 밤을 심어 소득을 올리자는 운동으로서 농지가 협소한 산간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운동이었다. 소득은 향상되었으나, 空洞化는 여전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자는 운동이 젊은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1965년 제2의 NPC(New Personality Combination)운동을 전개하였다. 풍성한 마음과 풍성한 교양 및 지식을 지닌 인재육성운동이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소득증대운동이란 물질적 차원에서 인재육성이란 정신적 차원으로 한 단계 승화된 것이다. 그리고 1969년에는 제3차 NPC(New Paradise Community) 운동을 전개하여 大山을 이상향의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 오락, 교육, 교양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大山町에 ‘음악감상실’을 설치한다든지, 젊은 아내들이 당일에 도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문화 버스(Culture Bus)를 운행한다든지, ‘1주 3일 농사’를 실시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大山町은 가구수가 1991년 3월 현재 1,

049호 이고 이 중 농협조합원 戶數는 691호, 총면적은 4,56ha이고 이 중 81.4%인 3,714ha가 임야이며, 과수원이 222.5ha로서 표고 100m~500m인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마. 大分縣天瀬町の 온천을 이용한 화훼재배

天瀬町은 인구 8,000여명이며 총면적의 9할이 산림으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0.2ha 정도의 소규모로 원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도입하여 이를 주산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 아래 町내의 풍부한 온천열을 이용하여 꽃을 재배할 계획을 세우고 1982년에 ‘天瀬町 화훼생산조합’ (16호의 농가 참여)을 결성하고 총공사비 약 9억 5천만 엔을 투입, 1988년에 시설을 완성하여, 현재는 판매액이 연간 2억 5천만 엔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의 절화 생산을 위하여 해외 연수생을 파견하여 국제화 시대에 견문을 넓히도록 하며, 월 1회 각 시장에 출하된 꽃의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廣島·大阪 시장은 물론 東京 시장에도 출하하고 있다.

화훼재배 비용은 보통 연간 10a당 200만 엔 정도 소요되나 온천열을 이용할 경우 60만엔밖에 들지 않아 輸入生花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산조합원의 평균 연령이 32.6세로서 도시에서 유(U)턴하여 온 젊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활기찬 모습이다. 이에 행정기관과 농협이 일체가 되어 온천을 이용한 화훼단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天瀬지도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시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행정부의 후

원 또한 적극적이다.

바. 大分縣日田市の ‘日田배(梨)’ 생산

大分縣日田市는 인구 약 7만명의 소도시이며 배 재배면적은 190ha로 縣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품종은 三水(新水, 幸水, 豊水), 新高, 新興, 晩三吉 및 20세기 등이다. 1975년 日田배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日田배 연구동지회’ (42명)를 결성하여 5명의 운영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비는 농협에서 연 30만엔과 회원들의 회비(1만엔)로 충당하고 있다. 同會는 고품질의 배 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각 회원의 과수원 토양 조사를 실시하여 배수 및 비료 효과가 좋은 토양개량에 노력하였다. 또한 출하가 시작되는 7월말에서 12월까지 4곳에 있는 選果場을 정기적으로 순회·검사를 실시하며 규격의 통일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만삼길의 저장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3~6월까지 출하시기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회원들은 연 1회 해외시찰도 하고 있다.

2. 高附加價値農業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가. 고부가가치농업의 정의

고부가가치 농업이란 (1) 소비자의 고품질 저공해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품질 야채, 과일 등을 생산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독자적인 상표를 개발하여 產地를 형성하는 형태의 농업, (2)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데 따라 유기농업 등과 같은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표 1 高附加價值농업의 類型

구 분	유 형		현실과 내용
생 산	특 산 형	브랜드품생산형	특산품생산, 토산품생산, 신포장개발
		특수생산형	유기, 자연, 감농약사용 농산물, 저온살균
가 공 형	가 공 형	보 장 형	일시저장, 냉동저장
		가 공 형	1차 가공, 완성품 가공
유 통	관 광 형	채 취 형	관광농원, 관광목장, 농업공원
		요리제공형	현지숙박시설, 관광레조트장
產 直 型	產 直 型	교 류 형	임농원, 민속촌
		농림제공형	직판점, 행사, 노천시장, 연도판매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의 농업, (3) 농산물 가공을 통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는 형태의 농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농업의 유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산형, 가공형, 관광형, 產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농업은 일촌일품운동과 같이 특산단지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주체는 보급소(농산가공지도소 포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매추진 주체는 농협이나 행정기관(제3섹터)이 담당하고 있어 판매추진 주체로서 농협과 제3섹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농산물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사례

1) 大分縣 玖珠町の ‘吉四六淸’

玖珠町 농협은 1975년에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당시 쌀 생산이 과잉되어 야채(무우, 오이, 당근, 셀러리, 매실 등)를 재배하였으나 가격의 폭등·폭락으로 수급조절이 어려워 이들 야채들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농협이 주도하여 야채 절임류 가공공장을 설립하

고 주부들을 취업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설적인 인물인 吉四六을 상표화하여 ‘吉四六淸’이라 하고 일본인의 전통적인 절임식품을 생산함으로써 현재는 전국적으로 유명상품이 되어 연간 7억엔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수퍼와 백화점에서 직접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판매에 애로가 많았으며 일촌일품운동이 시작되면서 유명 상품이 되었다.

2) 兵庫縣 朝來町の ‘흑대두 된장과 미숫가루엿’

朝來町은 10여년 전부터 집단으로 장려한 흑대두 가운데 市場性이 적은 2등급, 등외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町長의 제안으로 7년 전에 25평 규모의 가공공장을 세워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의 된장을, 여름철에는 미숫가루엿과 그밖의 여러 가지 식료품을 만들고 있다. 된장 판매량은 과거 9,000kg에서 현재는 25,000kg으로 증대되었고 수요가 계속 증대될 것이란 예측하에 공장기계를 증설하고 있다. 가공공장의 운영은 생활개선 부녀회가 맡고 있으며 10여명이 고용되어 있다.

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高山敏弘은 주장한다. (1) 대량생산된 제품의 판매는 농협이나 제3섹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일반기업이 취급하기 어려운 ‘謝絶品’이어야 한다. (2) 농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추진 주체가 부인회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후계자 양성이 뒤따라야 한다. (3) 지속적인 연구개선과 경영합리화로 타지역의 경쟁품보다 앞서 가거나 독특하여야 한다. (4) 특히 무농약, 무첨가, 저공해 등 품질에 대한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 (5) 판매방법도 단순한 생산물만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판다는 서비스 정신이 중요하다. (6)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육성하려면 民과 官의 총력 홍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7) 성공의 관건은 주체적 역할을 맡는 지역 지도자(행정, 농협, 지역 유지, 농민지도자 등)의 선견성과 이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열의에 달려 있다.

3. 故郷創生運動

가. 고향창생운동의 배경

일본에서는 동경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집중 현상으로 여러 가지 도시문제, 지방활력의 쇠퇴, 문화의 획일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각 지역이 특색을 살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역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다극 분산형 국토의 형성을 실현하고 궁지와 애착이 가는 ‘고향’을

만들자는 ‘고향창생운동’을 自治省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세계 경제와 정치의 장에서 대국의 위치에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효율성 추구 또는, 고도의 공업화만을 단독으로 추구하던 시대는 아니므로, 그와 동시에 생활의 풍요로움이나 환경의 아름다움, 품격 있는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고향 창생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고향’을 실현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고향창생운동의 기본방향

고향창생 추진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새로운 ‘고향’의 꿈을 묘사하고 비전을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참신하고도 대담한 발상으로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비전을 전달하는 형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립노력 위에 애착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전의 가능성을 찾는 지혜를 모아 마음이 풍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고향’,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격조있는 개성적인 ‘고향’을 창조하여야 한다.

둘째, 고향창생은 주민의 공동 참여로 자

립·자조 정신을 조직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지역 발전전략이나 경제 본위의 발상은 의외로 지역의 富를 창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人材와 組織의 육성만이 새로운 지역의 富가 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창의,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지역의 재산이 될 고향창생의 주체적 추진자가 되어 한다.

셋째, 고향창생은 그 사업이 다양하여야 한다. 즉, 아름다운 산하, 산업의 번영, 사람들의 행동양식, 생활양식의 아름다움, 각종 예술행사, 축제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각 지역은 일본 전체를 조망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 즉, 일본 및 세계 각 지역의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움의 지혜, 아름다움의 지혜와 깊이 교류함으로써 도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열린 세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자주성과 창의가 충만한 다른 지역과 교류함으로써 지역은 잠자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개성을 창조하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고향창생”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 都道府縣 단위의 고향창생 사업

고향창생을 실시하는 주체는 市町村이며 都道府縣은 市町村의 사업취지나 목적을 보급·홍보하는 등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업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市町村의 추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연락회의, 추진본부등을 설치하고

있다. 예를들면 榜木縣의 ‘고향縣 만들기 연락조정회의’, 大阪縣 고향창생 관련 사업 추진본부’, 山口府의 ‘고향 만들기 추진협의회’ 등이 있다.

둘째, 市町村이 주관하는 고향 만들기를 조언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하고, 상담 체제를 정비하기도 한다. 淨岡縣의 ‘후지의 지역 만들기 어드바이스’, 島根縣의 ‘고향창생 상담실’, 宮崎縣의 ‘고향육성 고문단’, 高知縣 ‘지역진단 어드바이스’ 등이 있다.

셋째, 市町村의 자주적·주체적 지역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都道府縣은 독자적인 종합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예로서 東京都의 ‘고향진흥사업’, 愛知縣의 ‘愛知의 고향 만들기 사업’, 京都府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 지원 보조금’ 등이 있다.

넷째, 都道府縣 정부는 지방의 신문·TV 등 지방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사업의 취지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관련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든지, 市町村長과 知事와의 간담회를 보도하는,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매체로 35개 현으로 가장 많고, 신문(34개현), 심포지움(231현), 비디오(23현), 사례집(21현), 홍보지(20현), 팜플렛(19현), 이벤트 개최(19현), 포스터(17현) 순이다.

다섯째, 都道府縣 단위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교육·교류센터(塾)’을 운영하기도 한다. 秋田縣의 ‘秋

田塾’, 山梨縣의 ‘靑年塾’, 大分縣의 ‘故郷創生塾’ 등이 있다.

여섯째, 그 밖에도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다. 山梨縣의 ‘감배의 縣소개대사’, 長野縣의 ‘만화로 하는 여행’, 山口縣의 ‘지역 만들기 아이디어 사례 도서관’, 郷川縣의 ‘고향수상’ 등이 있다.

라. 市町村 단위의 고향창생 사업

市町村은 都道府縣과 사업 연대를 꺾하면서 단독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東京都 島嶼府 九町村의 ‘동경도 도서 진흥공사 출연’, 石川縣 町五村的 관광진흥을 위한 연합체인 ‘白山連峰合衆國’에 참여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대학의 유치, 관광·레저 개발사업 참여, 人的 네트워크 형성사업, 고향문화 진흥사업, 자연환경 보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4.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

인간의 가치관은 ‘물질의 풍부함’에서 ‘마음의 풍요함’으로, ‘생활의 편리함’에서 ‘자연과의 교류’로, ‘소득·수입’에서 ‘여가·자유시간’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은 (1)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기 원하고, (2)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3) 고향회원제도 등에 의해서 농촌과의 인적, 지역적 연대를 갖기 원하며, (4) 빈 가옥이나 폐옥을 이용하여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농촌은 농업생산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위와 같은 도시민

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물, 森林, 景觀 등 지역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도시민에게 매력적인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본의 市町村은 (1) 농사 체험 교류 실시, (2) 농촌의 아름다운 景觀을 유지·형성, (3) 시민농원 설치, (4) 농업·농촌 체험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등, 도시와 농촌 부문 상호간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성도 ‘도시농촌 교류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촌교류 촉진사업’은 (1) 농촌과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도시 생활자 특히 자녀들에게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2) 도시 주민과의 의사교환, 농산물 전시 판매 등의 장소를 도시권에 설립하고, 도시와 농촌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사업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도농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농촌의 계획적인 토지이용 조성, 농업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의 일체적인 정비, 개방된 농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5. 일본의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塾) 운동

일본 농림성은 新農業構造改善事業(후기대책)의 次期對策으로서 1990년부터 ‘농업·농촌 활성화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이 사업의 핵심사업이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 운동’이다. 이 운동은 새로운 지역주의의 이념하에 지역의 농업·농촌 개발을 자주적이고 개성적인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할 때, 그 지원조치로서 행하여지는 운동이다.

가. 이 운동을 위한 정부(중앙 및 지방) 조직체계

이 운동의 정부지원 체계를 보면, 人物과 정보 네트워크의 정비를 위하여 중앙에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 都道府縣에 ‘都道府縣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 市町村에 ‘市町村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고 제휴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都道府縣과 전국 단위에서는 人·物·정보의 교류 네트워크를 정비·강화하고, 지역에서의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재의 개발과 농산물의 판촉 확대, 정보의 수집제공,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한다.

都道府縣 단위에서는 농업구조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지역 지도자의 육성과 지도, 농업경영전문가 및 물론 경제·사회·문화 각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Advise-group)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일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都道府縣내의 각 계층의 인재의 등록, 정보의 수집·제공, 市町村 단위 사업 실시 지구에서의 ‘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의 활동상황 파악과 운영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특히 자문 그룹은 지역의 시험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관계단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얻어 지역 지도자 등의 육성·확보를 위한 연수·자격등록, 자문 그룹 상호 교

류에 의한 자질 향상, 그리고 도시측과 농촌측 지도자와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에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의 형성, 도시와 농촌활성화를 위한 주요 테마의 연구 프로젝트 실시, 활성화 우량 사례의 수집·제공,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 활동상황의 파악, 우량사례 표창과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 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나. 人·物·情報 네트워크의 정비: 타업종과 교류에 의한 새로운 발전

종래는 농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他業種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농업 여건하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 진흥과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산업과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他業種과 교류하면 他業種의 신선한 의견과 신선한 기술 노하우의 획득이 기대되기 때문이며, 또한 他業種과의 제휴에 의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를 정비함으로써 농업전략의 폭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人材交流 network 형성: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의 ‘100인 위원회’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는 도시측의 문화인, 학자, 민간기업 대표와 농촌 측의 市町村長, 농협장, 지역 지도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100인 위원회’를 중

심으로 한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의 형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00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도시·농촌·官·民의 他業種 교류를 추진하고, 구성원의 협력을 얻어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심포지움, 지역 단위에서의 캠페인, 지역농업 강습소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 物資交流 네트워크 형성 : 수출을 포함하는 유통채널과 서비스 제공 확충

종래에는 농산물이 규격품의 대량생산, 대량유통을 전제로 생산, 유통되었으나, 소비자의 기호가 고도화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서는 농산물도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産直, 우편판매 등 생산자의 측면에서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화의 진전에 맞춰 작목에 따라 해외시장의 수요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대응하여, 관계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수출 채널의 개발·정비를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3) 정보 네트워크 형성 : 농촌의 고밀도 정보사회로 이행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핵심농가가 부족한 것은 농업 및 생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他業種과 교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대도시 집중화로 도시에 농촌으로 주로 도시의 것이 대부분이고 농촌에 필요한 정보는 빈곤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에서도 CATV를 독자적으로 방영하고, 광역화하여 농업생산기술·기상정보와 생활정보를 상호 교환하면 농업의 근대화화 농민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 또 그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매체를 신규시장(고객) 개척, 고객 조직화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의 생산·판매와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를 정비함으로써 농촌 내부 상호간, 농촌과 도시, 농촌과 타산업간의 정보교환을 농촌지역이 주도하도록 하고, 새로운 유통경로의 개척으로 경제활동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며, 농촌이 정보발신 기지로서 고밀도 정보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 운동'이다.

마. 국민운동으로서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塾)'의 전개

과거에는 水稻農業 확립운동, 토지이용형 농업을 확립하기 위한 농지의 유통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정책이 농업문제 해결책의 주축이었으나,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구조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적은 없었으며 이 운동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사회가 성숙하면 농촌이 일방적으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生産'만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농업·농촌의 多機能的 역할이 강조되고, 도시와 농촌이 共生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정책에서 필요한 재정부담 중 도시측의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업과 농촌의 활력화를 목적으로 한 '21세기 농촌활성화 교육·정보교류센터 운동'은 관계자의 폭넓은 이해를

언어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V. 맺는말

일본의 농촌지역활성화 사업은 일본 정부의 신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농업·농촌의 개발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노력이 강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주인은 주민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의지가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一村一品運動이 비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일촌·일품운동이 특산품의 생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즉 人的資源을 육성하였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개발의욕에 따라 관이 지원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관의 농촌·농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정에 찬 지원과 대외홍보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人的資源의 육성을 소홀히 하면서 단순히 지역특산물 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일촌·일품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와 국민은 농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국민적 성원을 보냄으로써 이들 스스로 폐촌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농촌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자료가 한국의 농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

을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일본의 지역활성화 및 고향창생운동」, 1990.
- 農業振興地域調査會, 「新じむうをめざして, 農林統計協會」, 1984.
- 全國農業會議所, 「明日の農業」, 1991.
- 平松守彦, 「地方からの發想」, 岩派新書 138, 1990.
- 豊澤豊雄, 「むらおこし發想の轉換, ぎよせい」, 1989.
- 丸谷金保, 「一村一品ハフオ ヌンス」, 日本の自治を考えぬ會, 1987. 10.
- 矢幡治美, 「農協は地域でなにかができるか, 大分大山町農協の實踐」, 家の光協會, 1989.
- 大分大山町 業協同組合, 「第43年度 業務のご報告」, 1991.
-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國際化の進展に對應した農業・農村の取組み」, 1991.
- , 「若い世代の後継者たちによる新しい農村漁業」, 1988.
- , 「住民参加による農かなむらづくり」, 1986.
- , 「地域ぐるみで取ら組む多様な水田農業の展開事例」, 1991.
- 大分縣, 「新農業プラン21: 農業・農村 變革への行動計劃」, 1990. 6.
- 市町村・農業委員會・農業會議, 「農村活性化土地利用構想」, 1991.
- 農林水産省 廣報室, 「日本の農業今日と明日: 21世紀へ 向けて」, 1987. 12.
- 農林漁業金融公庫, 「中山間地域その活性化のために」, 1990. 10.